

文 “亞문화수도 사업 정상화” 安 “세계적 창조 허브로”

대선후보 광주·전남 공약 점검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다음 정부에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 사업으로 확정됐음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들이 사업이 심각하게 왜곡, 축소되면서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세계적 창조 허브도시로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아시아문화전당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진척을 보지 못했던 7대 문화권 사업 추진과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등을 국가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주요 내용이다.

다만,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의 공약은 안 후보의 공약에 비해 사업 내용이 다양하고, 내실을 기하는 등 조금 더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과 오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기간 연장, 특별회계 적용 등 재원의 안정적 투여 등이 풀어야 할 과제다.

◇문재인 후보=아시아문화전당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콘텐츠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사업이 눈에 띈다. 전당 내 ‘예술·기술 융합센터’를 설립해 예술과 ICT(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한국 창의산업의 전초기지로 육성해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던 ‘문화창조융합센터’를 전당 내로 이전·통합하고 전국에 흩어진 17개 창조혁신센터, 56개의 무한 상상실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당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해 광주가 명실상부한 문화창조 콘텐츠 거점 역할을 하도록 했다.

문화전당 인근의 양림 역사문화마을 조성, 호남 의병길 개발 등을 포함한 신한류 남도관광 매력 명소 벨트 조성사업도 공약 중 하나다. 광주시가 제시한 내용이긴 하지만, 구체적 사업 내용을 담았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각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광주일보 자료 사진>

**文 예술·기술 융합센터 설립
창의산업 전초기지 육성
전국 문화창조센터 조정역
문화창조 콘텐츠 거점으로
양림 역사문화마을 조성**

**安 7대 문화권 사업 완성
문화창조에너지 확산
예술진흥·문화관광산업 육성
대인아시아·예술의거리 사업
유관기관 정례회의회**

‘2023년 일몰’ 특별법 연장·안정적 재원 투입 과제

평가다.

양림동에 소재한 개화기 선교유적 및 광주학생독립운동 등 유적과 전통문화를 토대로 ‘역사문화길’ ‘광주근대역사관’ ‘예술인촌’ ‘한·중 문화교류관’ 등을 조성해 국제적인 학자와 예술인 등이 체류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광주가 미디어아트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만큼 첨단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미디어아트 파크를 전당과 광주전 등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예술의 거리 일대를 예술품 거래 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면세혜택을 주고 예술품 거래소를 건립 운영하는 사업과 팝(POP) 공연장 조성 및 남도 한류음식테마파크, 호남 의병길 개발 등을 포함한 신한류 남도관광 매력 명소 벨트 조성사업도 공약에 포함됐다.

◇안철수 후보=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인 광주를 세계적 창조 허브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핵심사업인 문화전당 개관이 5년 가량 지연되면서 함께 추진될 예정이었던 7대 문화권 사업을 완성시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문화관광산업을 육성, 문화교류도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광주 여건에 맞는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관기관 간 정례회의회와 콘텐츠 협력회의, 문화기관 협의회 활성화 등을 통한 문화전당 협력체계 구축과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사업 확대 등이다.

또한,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 창조에너지를 광주 전역에 확산하는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광주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옛 광주교도소 부지의 민주·인권·평화 콤플

? 亞 문화수도 7대 문화권 조성사업 광주 전역을 ‘문화벨트화’ 하는 사업이다. 문화전당을 축으로 광주 5개 자치구를 문화·예술지구로 특화함으로써 도심 전체를 문화수도에 걸맞도록 리모델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차적으로 2023년까지 모두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7대 문화권은 문화전당·아시아문화교류관(사직공원 및 양림동 일대)·시각미디어문화관(북구 중외공원 일대)·아시아인쇄문화관(광산구 비아동 일대)·교육문화관(서구 마곡동 주변)·문화경관생태환경보존관(무등산 광주호 일대)·아시아전승문화관(남구 대촌 칠석동 일대)이다.

렉스 조성 사업도 포함시켰다. 특히 기독교 근대역사문화 유적지인 양림동 일대 관광벨트 조성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한국 근대역사관 건립과 역사문화길 조성 등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 사업과 연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광주시가 추진중인 대인예술아시장, 예술의 거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도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 연장과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조항 개정을 통한 국비 인상 지원을 추진 계획으로 세웠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재인·안철수 치열한 공약 경쟁

文 ‘광화문 대통령’...공적임대주택 17만호

靑~종묘 역사문화거리 조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4일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대통령 관저를 광화문 인근에 마련하는 등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역사문화벨트 조성 공약기획위원회와 광화문 대통령 공약 기획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역사문화벨트 위원회에는 진영 의원과 건축가인 승효상 이로재 대표, 역사학자인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임옥상 화백, 하승창 전 서울시 부시장이 참여한 다. 광화문 대통령 위원회에는 정만호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주영훈 전 대통령 경호실 안전본부장이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현재 문 후보가 검토 중인 구상에 따르면 청와대와 북악산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변모하고, 청와대~경복궁~광화문~서촌~북촌~종묘로 이어지는

역사문화거리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 중앙부리대처럼 돼 있는 광화문광장을 접근성과 함께 민주광장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해 위치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외함께 문 후보는 이날 주거난 해소를 위해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주거 사다리 정책’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우선 “국민의 직격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다”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총 17만호 중 13만호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임기 내 65만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4만호는 민간이 소유하되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주택도시기금·리모델링비 지원으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공공 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문 후보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그는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약 30%인 4만호를 신혼부부에 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安, 안보·교육 개혁·4차 산업혁명

한미동맹 스마트 강군 육성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4일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서 가장 첫 장에 안보 공약을 넣고 이어 교육과 4차 산업혁명 공약을 전면 배치해 중점 분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면한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교육 개혁과 4차 산업혁명 대비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침체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안 후보 측의 큰 그림이다.

안보 공약의 기조로 안 후보 측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자강안보”라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해 한반도 전쟁 위험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첨단 국방력 건설과 한미동맹 강화, 혁신적 국방개혁, 선진 병영문화 정착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외교·통일 분야에서도 6차 장관급 회담과 한·미·중 협의회 추진, 남북회담 제도화위원회 설치 및 2+2 남북장관급회담 추진,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

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러 교육 분야에서는 창의·인성교육 실현과 5-5-2 학제개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공립 유치원 이용률 40%로 확대 등을 공약시켰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단설 유치원 신설 자체’ 부분은 공약집에서 빠졌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에서는 “대기업 중심,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방식은 과감히 버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창업과 실패가 두려워 않는 ‘창업 대 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민간 주도 산업생태계 조성 과 원천기술 집중투자, 규제 체계 개선,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에 포함했다.

안 후보 측은 “이번 대선 당선자는 인수를 구성하지 못하는 만큼 치밀하게 준비되고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측은 이번 공약집에 기술된 공약을 이행하는 해마다 40조900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흥행... 개막 10일만에 30만 돌파

내달 7일까지 60만 넘을 듯

지난 14일 막이 오른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대흥행을 예고했다. 개막 10일 만에 누적 관람객이 30만을 돌파, 목표치 60만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해조류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박람회장 폐장 시간 기준 관람객 숫자가 32만837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달 7일 폐막까지 목표 관객 60만을 넘어 80만 가능할 것으로 주최 측은 보고 있다.

외국인도 이날 현재 1만5000여 명이나 다녔다. 외국인 3만명의 발길을 모아 국제화를 꾀한다는 행사 취지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조직위 관계자는 “전시관마다 차별화된 콘텐츠 등 볼 것과 체험할 게 많은 데다 먹을 것도 많은다는 입소문을 타고 관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체험학습장을 찾는 학생 관람객이 많다”고 귀띔했다.

30만명째 입장객의 영예는 광주에서 온 김병수(37)씨가 차지했다.

김씨 가족은 완도 특산품을 선물로 받았다. 완도해조류박람회는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사주 풍수 공개강좌 및 수강생 모집

사주(명리)와 풍수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무료공개강좌

- 일 시 : 2017. 5. 9(화) 오후7시
- 장 소 : 남구 주월동 398-52, 2층 (구)대동고양 및 고을연합의원 우측 에벤에셀교회 2층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 00명)

초급반 개강 (4개월 과정)

- 일 시 : 2017. 5. 16(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공개강좌 장소)
- 수강료 : 사주 + 풍수 15만원(월)

컨설팅 분야

- 가업승수 비법전수 및 교육훈련
- 수액파 중화, 양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매장, 이장, 납골당 등 음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대형건물, 토지 등의 풍수 감정
- 원인불명의 우환, 사업부진 등의 풍수적 진단
- 사주감정 및 교육 (사주, 궁합, 택일 등)
- 적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한국기감풍수연구회
062)674-4991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치평동 상가 매매

- 상무나이트 옆 수림상가
- 10층 중 10층 795m²(250평)
- 임대가(5000만/350만)
- 감정/시세 8억 7700만
- 급매 7억 7000만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m²(33평)
- 교육환경 최상
- 시세 4억 3000만
- 매매 4억 1500만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 수기동 23-2번지 제일오피스텔
- 19층 95m²(28평)
- 임대중(400만/월 47만)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5900만

문의 010-9203-6161